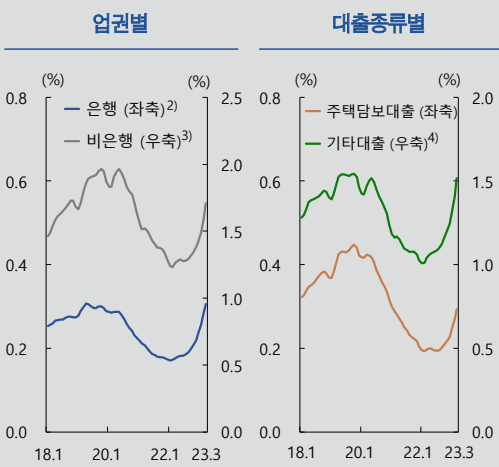


## 참고 1.

###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점검<sup>1)</sup>

코로나19 위기중 낮은 수준을 지속하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높아졌으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신규대출 취급이 둔화된 가운데 기존대출 연체잔액이 증가한 데 기인<sup>2)</sup>하고 있어 가계대출 부실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연체율 상황과 빈티지(취급시기별) 연체율 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연체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가계대출 연체를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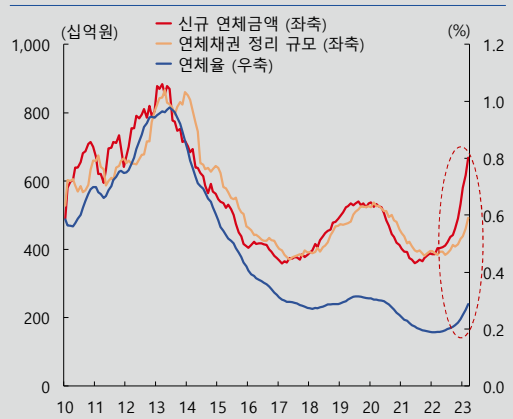


주: 1) 3개월 이동평균 기준  
 2) 국내은행 기준 (이하 동일)  
 3)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동일)  
 4) 신용대출, 기타담보대출, 보증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및 신규연체 상황

그간 가계대출 연체 규모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신규연체 채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이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신규 연체금액이 정리 규모를 상회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은행 가계대출 신규연체 및 연체정리<sup>1)</sup> 규모<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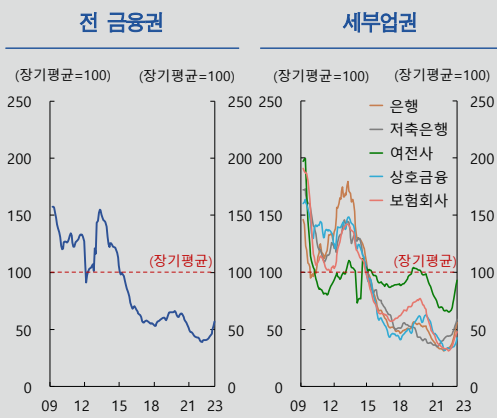
주: 1) 매·상각, 정상화, 회수 등  
 2) 월중 신규연체 및 연체정리 규모  
 3) 6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다만 아직 각 업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및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009~19년 중)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현재 0.31%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8% 내외) 및 장기평균(0.54%)을 하회하고 있다.<sup>3)</sup> 비은행금융기관중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장기평균 수준(9.3%,

1) 본고는 노유철·이도홍·이해인(안정총괄팀)이 작성, 박구도(금융안정기획부장)·임광규(안정총괄팀장)·김정훈(통화금융부장)이 검토하였다.  
 2) 2022년 하반기중 연체율 분석 대상 가계대출 잔액이 0.9% 감소하는 동안 가계대출 연체잔액(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6.4%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는 연체잔액이 전월대비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은행중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2023년 3월말 기준 0.5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2%)을 하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8%, 6.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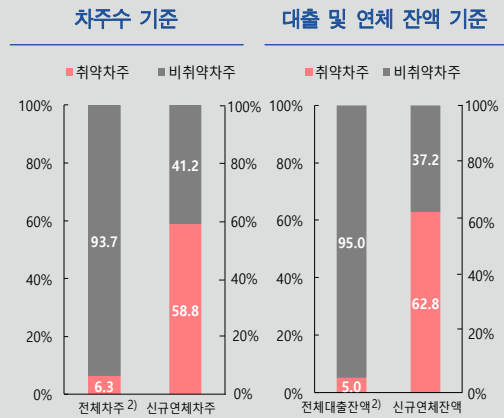
가계대출 연체를 수준<sup>1)</sup>의 장기평균과 비교<sup>2)</sup>



주: 1) 장기평균(2009-19년중 월별 연체율의 평균)을 기준치 100으로 하고 각 시점별 연체율을 장기평균 대비 수준으로 환산  
2)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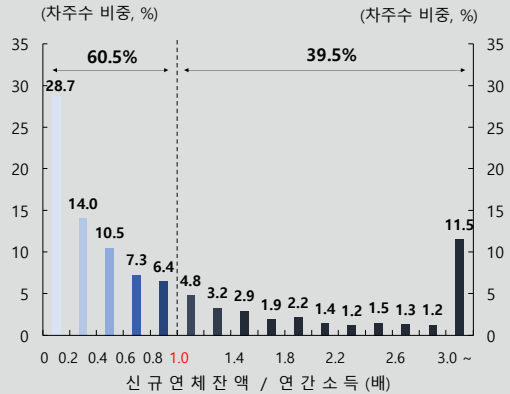
한편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채권은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차주로부터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말 기준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수 및 대출잔액의 각각 6.3%, 5.0%에 불과하나, 2022년 하반기중 신규연체차주와 신규연체잔액을 대상으로 보면 취약차주가 각각 58.8%,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신규연체 취약차주중 39.5%는 신규연체잔액이 차주의 연간소득 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연체채권의 상당 부분이 상환에 의한 정상화보다는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되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sup>4)</sup>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신규연체 차주<sup>1)</sup> 현황 : 취약 및 비취약 차주



주: 1) 2022년 2/4분기말 연체잔액 대비 4/4분기말 연체잔액이 증가한 차주  
2) 2022년 4/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신규연체 취약차주<sup>1)</sup>의 신규연체잔액 / 연간소득 비율 분포



주: 1) 2022년 2/4분기말 기준 취약차주이면서 2022년 하반기중 가계대출 연체잔액이 증가한 차주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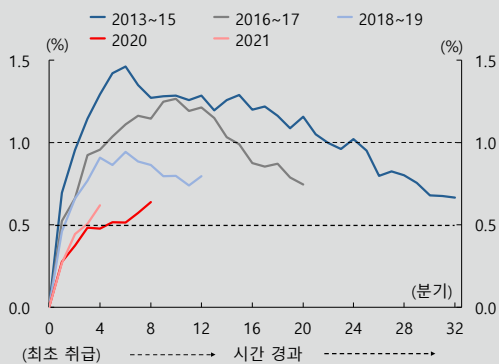
빈티지 연체율을 통한 향후 연체율 흐름 점검

이러한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빈티지(vintage) 연체

(0.8% 내외)에는 못 미치나 장기평균(0.40%)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 장기평균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2023년 3월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이 0.77%로 시중은행(0.30%) 및 지방은행(0.55%)보다 높으며 상승속도가 빠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예컨대, 은행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요주의여신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의 7%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체로 이어질 경우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으로 분류되어 연체 기간에 따라 20~100%의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율의 개념을 활용하여 가계대출을 취급시기별로 나누고<sup>5)</sup>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체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3~19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공통적으로 취급 직후 약 6-8개월에 걸쳐 가파르게 상승한 후, 1.0~1.5% 수준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경향을 보여왔다.<sup>6)</sup> 그러나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경우 낮은 금리 수준과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연체율의 오름세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만해졌고 연체율 수준도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과 정책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그간 이연되어 온 연체가 일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는 한동안 가계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계대출 빈티지 연체율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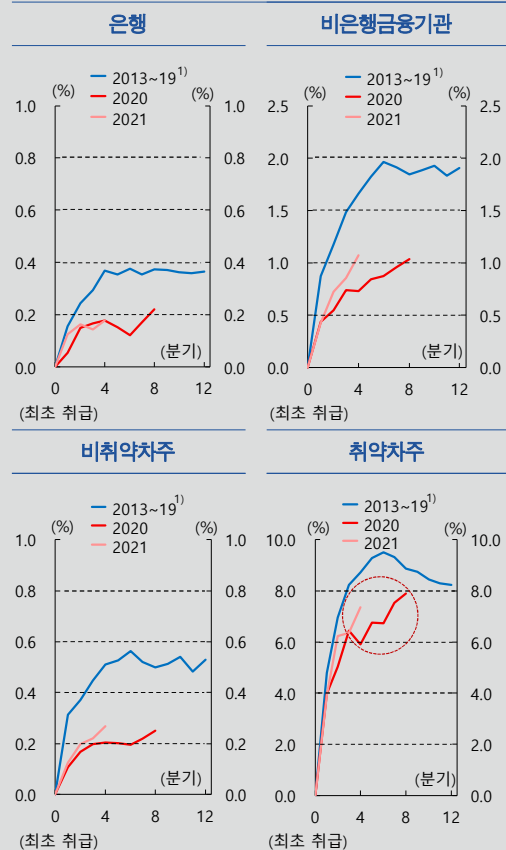


주: 1)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이용하여 연도별 빈티지 연체율을 시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한편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압력은 특히 취약차주 및 비은행금융기관<sup>7)</sup>에서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늘려있는 데다, 앞서 보았듯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지원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왔던 취약차주의 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신규연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약차주의 빈티지 연체율을 보면,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빈티지 연체율의 업권별·차주별 추이



주: 1) 2013-19년중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바탕으로 시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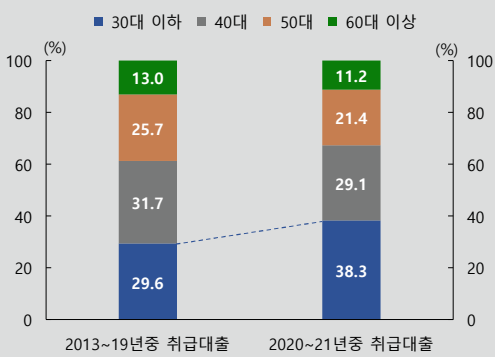
5) 가계대출의 취급시기를 분기별로 나누고 각각의 빈티지 연체율을 계산해 본 결과, 연중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의 흐름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이용하여 연도별 빈티지 연체율을 시산하였다.

6) 2013년 이후 대출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빈티지 연체율은 그 오름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정점에서의 연체율 수준도 2013-15년중 1.5% → 2016-17년중 1.3% → 2018-19년중 0.9%로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실제 금융기관 업무보고서를 통해 집계한 금융권 전체 대상 가계대출 연체율(2013-19년중 평균 1.2%) 또한 같은 기간중 완만하게 하락해 왔다.

7) 2022년말 기준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중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하여 취약차주의 대출은 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중 30대 이하 차주 가계대출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19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은 30대 이하 차주의 대출이 전체의 29.6%였으나 2020~21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의 경우 동 비중이 38.3%로 상당폭 확대되었다. 해당 차주들의 소득기반이 여타 연령에 비해 다소 취약<sup>8)</sup>한 만큼, 한동안 30대 이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 차주의 연령대별 비중<sup>9)</sup>



주: 1) 취급시기별 가계대출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평가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취약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

날 수 있어 가계대출 연체율도 당분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sup>9)</sup> 특히 2020~21년중 저금리 환경 및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가계대출 부실이 점차 현재화되고 누적되어 가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간 금융기관들이 높아진 신용위험에 대응하여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 온 만큼, 가계대출 연체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다만 신규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자본확충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 연체채권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차주들이 필요에 따라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sup>11)</sup>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연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의 급격한 증대로 부실채권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2020~21년중 가계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차주중 저소득(전체 가계대출 차주 중 소득 하위 30%) 차주의 비중은 약 9.1%로 동 기간중 가계대출을 받은 40~50대 차주중 저소득 차주의 비중인 7.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30대 이하 차주중 저소득 차주의 비중은 2.9%로 나타나 40~50대 차주의 4.0%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였다.

9) 다만 신규연체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그에 상응하여 매·상각 등을 통한 부실여신 정리 규모를 크게 확대할 경우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세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계대출 부실위험 추이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연체율뿐 아니라 신규연체 발생 규모를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10) 은행들이 부실여신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려온 결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일반은행 기준 2022년 1/4분기말 199.7% → 2/4분기말 219.8% → 3/4분기말 228.1% → 4/4분기말 231.0%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내 각 업권 역시 최근의 고정이하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자본비율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 최근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다중채무자, 기초수급자, 고통자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동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수단을 비교해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 기획 확대와 비용부담 절감 등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